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동양저축은행 임직원 일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결혼? 눈 높이가 하늘을 찌른다면!
062-228-3222

제17657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1월 18일 (음력 11월 30일) 목요일

고흥서만 사는 희귀 민물고기 '좀수수치'

"살려주세요"

하천 공사로 세계 유일 서식지 파괴…멸종 위기

"지구상에 한국에만 있는 희귀 민물고기인 '좀수수치'를 아십니까"

우리나라 미꾸리과 어류 16종 가운데 가장 최근에 발견된 좀수수치는 어른 새끼 손가락보다 작고 가는 몸집에 줄무늬가 촘촘하게 나 있다. 이 물고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청정지역인 고흥군 금산면 소하천에서 서식하고 있다.

좀수수치는 김익수 전북대 생물과학부 교수가 지난 1995년 처음 발견, 학계에 소개됐고 1996년엔 특정 야생동식물로 지정돼 법정 보호종이 됐다. 그러나 환경부가 2005년 보호종을 새로 지정하면서 좀수수치는 제외됐다. 한 지역에만 분포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보호를 맡기는 것이 낫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같은 사실을 전남도와 고흥군에 통보하지 않은데다 지난해 말 산사태 예방을 위해 서식처 인근인 소하천 바닥과 기슭을 돌과 콘크리트로 뒤덮은 사방댐이 준공돼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좀수수치'의 서식상황 및 생태를 연구중인 전북대 김은진씨는 "1년전 11마리였던 개체수가 지금은 한 두 마리에 불과할 정도로 서식지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물고기를 처음 찾아냈던 전북대 김익수교수도 "이대로 가다가는 1~2년 사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천연기념물 지정 등 특단의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흥군 관계자는 "환경부와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거쳐 실효성 있는 보전 대책을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사랑을 배식 합니다" 시민단체 '굿네이버스' 광주지부가 지난해 말 문을 연 광주시 남구 구동 '좋은이웃 지역아동센터'에서 17일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20여명의 어린이들이 점심을 먹는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수엑스포 1조6천억 투자

정부, 기본계획 확정…모로코·폴란드와 본격 유치 경쟁

정부가 17일 1조6천억원을 투입하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유치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개최를 신청한 한국·모로코·폴란드 3국간 치열한 경합이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중앙정부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를 열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여수엑스포는 2012년 5월 12일~8월 12일까지'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열리며, 이 기간 80개국, 795만여 명의 관광객이 박람회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람회장은 여수 신항 지역에 모두 141만㎡ 규모로 조성되며, 25만㎡는 전시구역으로, 116만㎡는 주차장과 숙박단지로 이뤄진 지원구역으로 만들어진다. 이 중 컨퍼런스센터에 해당하는 2만 3천 140㎡은 바다 위에 떠있는 부유시설로 만들어 진다.

정부는 아울러 박람회장 근처 고급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이 일대에 865실 규모의 콘도를 짓고, 크루즈선의 선실 1천실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비 1조 6천억원 중 4천 748억원은 민자로, 4천314억원은 입장료 등 수익사업으로, 3천334억원은 행사후 시설물 매각수입으로 각각 충당할 계획이며 4천298억원의 재정지원금으로 조달한다. 박람회가 끝나면 관련 시설은 마리나, 해양과학관, 해양체험센터로 활용해 박람회장 지역을 미래형 관광·레저 항구로 개발된다.

정부는 오는 4월 9~13일 세계박람회기구(BIE)의 여수엑스포 준비상황에 대한 현지실사시 여수박람회장 부지조성, 사후활용, 교통·숙박대책 등 각종 준비상황과 박람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이 기본계획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 재외공관의 외교라인과 현대와 삼성, LG 등 글로벌 기업의 영업망을 풀가동하는 민·관 총력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여수시도 엑스포 유치 열기를 높이기 위해 언론 매체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하고 다양한 이벤트 개최와 함께 공항과 역, 터미널 등에서 홍보활동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2012년 엑스포 유치국은 오는 12월 제142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되며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하면 3위를 제외하고 2차 투표에서 많은 표를 얻은 국가가 유치국이 된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개헌 반대세력 집요하게 책임 추궁"

盧대통령, 편집·보도국장 오찬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분명히 개헌이 될지 안 될지 정말 모르는 일"이라며 "그러나 개헌이 안됐을 경우에 반대했던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책임을 물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리고 이후 다음 정권 5년 내내 역시 헌법이 개정되지 않고 무산됐을 때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개헌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한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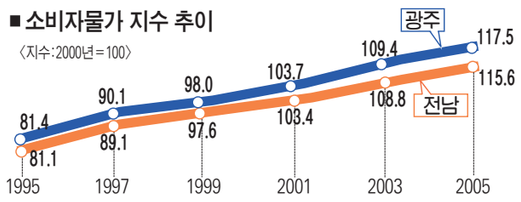
노 대통령은 "그것은 단지 오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 논리가 있는, 합리가 있는 사회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론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미루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여론이라는 것은 항상 변했다. 제가 책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교육비 10년새 2배 '껑충'

전기·난방·수도·식료품 물가상승 부추켜

■소비자물가 지수 추이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변화

지난 10년동안 사교육비의 대종을 이루는 입시학원비 등 교육비가 배가까이 올랐다. 또 사과 가격이 2.4배 올라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이같은 사실은 17일 광주·전남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1995~2005년)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변화'에 따른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교육비의 경우 이 기간동안 80.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입시학원비는 10년전에 비해 1.5배, 중학교 참고서 값은 1.3배 가량 크게 올랐다.

한우쇠갈비와 한우쇠고기가 1.2배나 올라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 닭고기도 10년전에 비해 83.4%나 올랐다. 또 광열·수도 및 식료품 등의 물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살림을 압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광주는 광열·수도(105.9%) 및 식료품(54.1%) 등을 중심으로 물가가 크게 올라 전체 물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43.1%를 상회했다. 하수도료는 18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LPG(129.6%), 상수도료(106.4%) 등이었다.

채소·해초(85.1%), 과실(81.6%), 육류(80.1%) 등 식료품 물가 상승세도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과실은 사과(237.9%), 참외(123.1%), 밤(96.3%) 등의 가격이 급등했으며, 채소·해초는 풋고추(169.6%), 당근(141.4%) 등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서비스 품목의 경우 10년간 공공 및 개인서비스가 각각 51.6%, 49.2%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집세는 7% 올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게 나타났다. 이밖에 농축산물 전체 물가는 68.6% 상승했고, 공업제품은 40% 올랐다.

광주의 경우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지역 내 '저소득 고물가' 구조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의 10년간 물가상승률은 각각 44.3%, 42.5%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 구희승은 이번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단독판사를 끝으로 정든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천고등학교(30회), 서울대학교(81학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농림수산부, 상공부 사무관, 산업자원부 서기관을 지냈으며, 제4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0기)에 합격하여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양시법원 판사, 구례군법원 판사, 구례군 선거관리위원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단독판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다져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심을 다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겠사오니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7년 1월

변호사 구 희 승 올림

■업무개시 : 2007. 1. 11.(목)
■개업장소 : 순천시 조례동 724번지 (법원삼거리 GS주유소 건너편)
■대표전화 : (061)722-5050 팩스(061)722-4747
■개업소연 : 2007. 1. 24.(수) 16:00부터